

경주시, APEC 정상회의 유치 서명운동 '100만명 돌파'

2개월 만에 120만6355명 참여
이달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
공모 신청 앞서 추진위원회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100만인 서명달성 기념식에 참석해 버튼터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전 국민적인 열원이 두 달 여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지난 11월 16일 기준으로 총 120만63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지 불과 2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120만명을 훌쩍 돌파한 것이다.

이에 경주시는 11월 1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주낙영 경주

시장, 이철우 시의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박몽룡 범시민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서명운동 참여기관·단체와 100만 서명운동 서포터즈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서명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편 시는 이번 100만 서명 달성은 그 동안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도내 21개 시군과 유관기

관 및 각종 단체는 물론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전 국민적 응원과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앞서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21개 시장군수의 지지 서명을 시작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홍보단과 시의회 유치 특별위원회도 내시군과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며 100만 서명운동 동참을 적극 이끌어 냈다.

시는 이달까지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오는 12월 경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인구 25만명에 불과한 지방도시에서 이와 같은 성과는 시도민은 물론 전국에서 경주를 지지해 주는 마음이 모인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보여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뜨거운 응원과 관심이 반드시 성공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시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을 확인한 만큼 향후 공모신청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범시민적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여주시

'다섬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여주시(시장 정기명)가 2026여주시세계섬박람회 캐릭터인 '다섬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 6천 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2026여주시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섬박람회 성공 개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모티콘은 지난해 개발된 2026여주시세계섬박람회 EI(Event Identity) 디자인을 활용, 소셜 메신저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사용하는 동작 16종으로 구성됐다.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힐링여수야'를 검색해 친구 추가하면 된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경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식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17일 경북도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도 의회 상임위원장들과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에는 국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공무원 36명과 일반직공무원 27명을 포함해 총 63명의 순직공무원이 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전남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추진

전남도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력 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하며 친환경농업인 외에도 일반농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다. 상토는 공시된 제품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구미시

시민화합 성탄트리 점등식 개최

구미시는 18일 구미역 광장에서 구미시장로총연합회(회장 박병윤) 주관으로 '2023 시민화합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예배, 축사, 성탄트리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트리는 내년 1월까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며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종교를 넘어 시민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울산-부산항만공, 경쟁력 제고 노력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맞손'

벙커링 선박 항비 감면·인센티브
정보 플랫폼·해외 선사 마케팅 계획

울산항만공사(UPA)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이 항만의 경쟁력과 항로 유지에 필수요소인 만큼 양 기관의 발빠른 대응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UPA는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17일 공사 사옥에서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UPA 김재균 사장, BPA 강준석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항-부산항 간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벙커링 선박 항비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 선박연료 정보 플랫폼 구축 ▲친환경 벙커링에 대한 해외 선사 마케팅 활용 등 국내 해운과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가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으로 울산항을 지정한 만큼 울산항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항에 기항하는 세계적 선사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UPA가 추진하는 LNG·메탄올·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물류 주요 사업들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佛서 한복 기반 엑스포 옥외광고

한복 디자인 광고로 분위기 고조

부산시(시장박형준)가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적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한복 기반의 화려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의 옥외 광고를 진행한다. 이는 오는 28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국의 매력을 알림으로써 투표권이 있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표심을 흔들기 위해서다.

현재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는 ▲파리 택시 외부 랩핑(100대) ▲드골공항 내 디지털타워(4기) ▲파리 대형쇼핑몰 월스크린(2기) 등이 있다. 파리 택시 100대엔 색동한복을 입은 어린이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랩핑돼 파리 시내 곳곳을 누비며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드골공항 수화물 도착장과 파리 대형쇼핑몰 시타디움 외벽 등에 있는 디



부산시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030엑스포 유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산시

지털 타워와 월 스크린에는 한복을 착용한 외국인이 '엑스포 2030 부산(EXPO 2030 BUSAN)'이 적힌 부채를 들고 있는 4종류의 시안이 송출되고 있어 파리관광객, 현지인 등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유치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다.

조유장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광주시, 이스포츠 중심지로 '부각'

전국 최대 규모 '광주이스포츠경기장'

광주시가 이스포츠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중심으로 굵직굵직한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과 게임개발자 육성 등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은 광주 이스포츠산업 활성화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포츠 경기장은 4290㎡ 규모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부조정실·P·C존·미니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다. 주경기장은 1731㎡ 1005석 규모로 국제대회 등 메이저급 경기를 치를



이스포츠 성지 광주. /광주시

수 있다. 가로 15.5m, 세로 4m 크기의 4K 고해상도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가 무대에 구축돼 있으며, 어느 좌석에서든 2000W이상의 고출력 스피커로 생생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는 올해 대회 유치 21회 등 모두 55차례의 경기가 열렸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세계 트렌드 리더지식' 강연

BNK부산銀과 'BeFM 드림콘서트'

세계적 트렌드 리더가 도전과 영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이 열린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표이사 황기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2023 BeFM 드림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의 중·고등학생과 수험생, 그리고 시민에게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트렌드 리더의 지식과 공감을 나누고, 부산의 청소년에게 세계를 꿈꾸도록 격려하는 특별 초청

강연이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영어방송본부가 주최하고 BNK 부산은행이 후원한다.

이날 행사는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 센터의 하정우 센터장이 '인공지능의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진 후 ▲국제정치 전문가이자 방송인 김지운 박사가 '세계의 트렌드를 읽는 안목을 키워라'를 주제로 세계를 향한 비전을 제안하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부산=장병호 기자